

# 현장실습에 대한 제안 한 가지

이정영  
현대자동차 인사기획팀

## 1. 서언

오늘날 기술의 진보속도는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기술의 발전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더욱 절실히 짐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이런 현실에서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은 한국이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취하던 시절의 중량감보다 더욱 무게를 느끼게 한다.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려는 목표를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산학협동차원의 현장실습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실무자 입장에서 느낀 몇 가지 점을 밝히고자 한다.

## 2. 실시배경과 현 실정에 대하여

대학교육은 기술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체와 대학간 기술지식면에서 많은 격리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되는 사회적 비용낭비 현상이 벌어지는셈이다. 이러한 모순의 극복과 산학간의 기술개발 연계 차원에서 현장실습제도는 그 활용여하에 따라 신기술개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기업체의 기술발전 및 생산성에 즉시 활용가능한 인재교육의 측면에서, 학교 및 학생들은 입사 후 적응문제와 기업현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현장실습제도는 양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시행된 현장실습제도는 그 배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요충족도를 별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 가을 모대학에서는 그해 여름방학 기간중 실시된 모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발표회 및 평가회'를 가졌다. 이 학과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기업과 학생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

[ 표 1-1) 현장실습생 의견

(단위 : %)

질문내용	매우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현장실습프로그램에 만족?	0	13	57	26	4
자신의 실습기업 후배에 추천?	0	4	48	35	13
실습시 배운 내용이 도움되었나?	0	26	40	30	4
실습기간은 적당한가?	4	9	74-적당	길다 : 13	
졸업후 그 회사에 취직할 의향?	0	17	39	35	9
실습내용의 업무량은?	5-적다	27	68	0	0
근무부서의 분위기?	0-불쾌	0	13	65	22



었다.(표-1)

학생들은 기업의 실제적 측면, 창조적 작업과정을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외국기술의존도, 연구능력 부족, 바쁜 연구원 생활 등에 대해 회의를 가지기도 한것 같다.

학교 공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에 치중한 학교수업, 이론과 실제 차이, 수업내용 실제응용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위 표의 내용을 볼 때 학생들은 대체로 실습기간, 근무부서 분위기, 실습기업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비교적 나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부재 (실습내용, 업무량 포함)에 대해 불만을 표시 하고 있다.

그 예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너무나 하는 일이 단순하다.
- ② 체계적이지 못한 구성, 학생입장의 재구성 필요 (역지로 하는 듯한 인상)
- ③ 적성 및 능력의 평가를 통한 적절한 업무 편성 필요
- ④ 프로그램의 약속이 틀리다.
- ⑤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 (신경 써 주는 사람이 없다)
- ⑥ 학생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
- ⑦ 실습학생에 대한 전담 담당자 필요
- ⑧ 차라리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해 주었으면...

위와 같은 의견이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다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다.

실무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아직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현장실습제도는 구조화, 정비된 Program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구조화, 정비된 현장실습 Program의 개발

지난 3년간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면서 항상 이쉽게 생각했던 것은 막상 Program의 개발에는 소홀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비단 폐사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현장실습 발표회 및 평가회’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부분이고 보면 분명 단기간에 기업실정에 맞고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는 구조화, 정비된 Program을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Program의 준비가 없이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한 학생의 지적과 같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수요는 분명히 “그런 Program의 준비상태가 어떤 기업이 잘 돼 있나?” “우리가 그 기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 할 수 있는 기업에 몰릴 것이다. 그런 기업은 아무래도 우수인재 확보와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Program의 개발에 필요한 것은 기업과 학교 간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활발한 접촉과 열의이다. 기본적인 틀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 기업이나 학교나 공통의 목표를 인식하면서도 개별적인 하나의 주체이다 보니 서로간에 정보교환에 인식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한다.

두 주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공통목표에 부합하는 개별 목표를 정하고 서로 의견을 조화시키려는 노력과 시간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보다 나은 Progra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습과정을 상호 협의하고 한 학기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Feedback하여 재정비, 검토하여 Program을 정비한다.’

기업의 실무담당자, 학교의 실습운영자 모두가 느끼는 공통사항이지만, 실행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세계화, 무한경쟁시대라고 누구나 흔히 이야기한다. 하지만 혹자는 실천보다는 구호에 정신이 팔려 있을 지도 모른다. 산학협동을 통한 기업과 학교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학교만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